

사회 유기체 ‘유추’와 ‘비유’

The social organism ‘analogy’ and ‘metaphor’

고 봉 진*
Ko, Bong-Jin

목 차

- I. 서언(序言)
- II. 사회의 유기체 ‘유추’
- III. 사회의 유기체 ‘유추’는 적절한가?
- IV. 사회의 유기체 ‘비유’
- V. 결언(結言)

국문초록

필자는 이 논문에서 사회에 유기체에 적용되는 원리를 유추적용한 학자로 뒤르켐과 루만의 이론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사회에 유기체를 ‘유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를 살펴볼 생각이다. 사회와 유기체는 ‘유추’ 관계에 있기 보다는 ‘비유’ 관계에 있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해 보았다. 필자는 병든 유기체와 병든 사회, 건강한 유기체와 건강한 사회가 비슷하다는 점에 근거해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고자 한다.

필자는 사회와 유기체가 사회에 유기체의 작동 원리를 유추 적용할 만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점이 더 많다. 사회와 유기체는 ‘유추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비유 관계’에 있다. 유기체의 작동

논문접수일 : 2017.06.29.

심사완료일 : 2017.07.24.

게재확정일 : 2017.07.24.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법학박사

원리를 잘 살펴보고, 이를 현대 사회의 규범적 모델로 설정하는 작업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사회’의 유기체 비유를 통해 사회의 규범적 모델을 설정하는 작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사회를 유기체처럼 만들 수는 없지만, 유기체가 작동하는 원리에 비추어 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려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유기체의 작동원리를 참조하지만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유기체는 유기적 연대의 매커니즘이 내재해 있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다. 규범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과제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기체에 비유해 사회의 규범적 모델을 설정하는 작업은 ‘비유’라는 특징에 기초해 유기체의 작동원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인다.

체계이론은 인간을 다시 한 번 중요한 고려인자로 꼽아야 한다. 인간을 사회의 설명요소로 파악하여 인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사회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이유도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과 별도로 어떤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의 ‘규범적 시스템 이론’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정의로운) 시스템과 나쁜 시스템을 분별할 수 있다.

주제어 : 사회, 유기체, 시스템, 유추, 비유

1. 서언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첫 번째 질문은 사회의 ‘사실적 모습’을 묻는 질문인 반면에, 두 번째 질문은 사회의 ‘규범적 모습’에 대한 것이다.

위 두 가지 질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우 달라졌다. 특히 근대 이전 사회와 근대 이후 사회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도 다양해졌다. 영국의 법제사가인 헨리 메인(Henry Maine, 1822-1888)은 ‘고대법(Ancient Law, 1861)’에서 중세 신분질서사회로부터 근대 계약질서사회로의 이행을 ‘신분에서 계약으로(from status to contract)’라는 유명한 문구로

표현했다.¹⁾ 독일의 사회학자 퇴니에스(Ferdinand Tönnies)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1887)'에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비교했다.

오늘날 사회는 이전 사회와 비교해서 세속화되고, 다원화되고,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라는 점에서 이전 신분사회나 공동사회에 적용되던 원리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이 오늘날에도 과연 타당할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묻는 규범적 질문에는 그 대답이 훨씬 더 다양하다.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를 묻는 사실적 질문에는 (사실을 판단함에 가치가 반영되어 사실 자체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있는' 사실을 기술하면 되기에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사회의 규범적 모습을 그리는 시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오늘날 자유지상주의, 의무론적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등 여러 관점에서 사회의 규범적 모델을 제시한다. 계약론의 관점에서 사회의 지도원리를 설정하기도 하고, 사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사회의 규범적 모델을 제시하기도 한다. 사회유기체설처럼 사회에 유기체에 적용되는 원리를 적용하는 시도도 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뒤르켐과 루만의 이론을 유기체 원리를 사회에 유추적용했다는 맥락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후, 사회에 유기체를 '유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를 살펴볼 생각이다. 필자는 사회와 유기체는 '유추' 관계에 있기보다는 '비유' 관계에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필자는 병든 유기체와 병든 사회, 건강한 유기체와 건강한 사회가 비슷하다는 점에 근거해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고자 한다.

II. 사회의 유기체 '유추'

유기체 원리를 사회에 유추적용한 학자로는 뒤르켐(Emile Durkheim, 1858-1917)과 루만(Niklas Luhmann, 1927-1998)을 들 수 있다. 뒤르켐과 루만은 유기체가 가지는 특징 하나를 중심으로 유기체 원리를 사회에 적용했다. 뒤르켐의 '분업에 따른 유기적 연대'와 루만의 '사회체계의 자기생산'은 (필자가 보기

1) 헨리 메인(Henry Maine)의 '고대법(Ancient Law, 1861)'은 우리말로 번역되었다. Henry Summer Maine(정동호·김은아·강승목 역), 「고대법」, 세창출판사, 2009.

에) 유기체 원리를 사회에 적용한 것이다.

1. 뒤르켐의 ‘유기적 연대’

뒤르켐(Emile Durkheim)은 1893년에 발간된 박사논문인 ‘노동분업론(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에서 현대 사회가 점점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점점 이질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 책에서 뒤르켐은 이질적으로 변해가는 현대 사회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²⁾

뒤르켐은 동질적이었던 이전 사회와 비교해 현대 사회는 점점 이질적으로 변화하면서 사회 연대와 통합이 매우 어려워졌음을 직감했다. 이전 사회는 사회 구성원의 동질성에 기초해 사회 연대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는데, 뒤르켐은 이를 ‘기계적 연대(mechanic solidarity)’로 표현했다. 동질성에 기초한 사회에 적용되는 ‘기계적 연대’ 개념을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없음은 그에게 명백했다. 그렇다고 사회 통합, 사회 연대의 대과제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유기체가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이질화되었음에도 잘 유지되고 운용되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유기체의 각 부분들이 서로 연대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이 원리를 사회에 적용시켰다. 뒤르켐은 현대 사회에 적용되는 ‘분업의 원리’에 주목했는데, 아담 스미스가 강조한 ‘분업의 생산성’보다는 분업이 야기하는 연대의 효과를 주시했다. 그는 분업의 진정한 기능을 각 기능 간에 연대감을 만드는 데 있다고 보았고 이를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로 명명하였다.³⁾ 그가 주목한 것은 ‘분업’과 ‘유기체’였고, 이를 바탕으로 ‘유기적 연대’라는 단어를 창안해냈다.

2) “이 책을 쓰던 초기에 내가 가졌던 질문은, 개인의 인격과 사회적 연대간 관계의 문제였다. 이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더 자율적이 되면서 동시에 사회에 더 의존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어떻게 개인이 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서로 더 많은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두 움직임은 겉으로는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평행선을 그으며 서로를 추구한다. 이 명백한 이율배반을 해결한 것은 항상 더 증가하는 분업에서 비롯된 사회적 연대의 변화이다. 우리가 분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삼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Emile Durkheim(민문홍 역), 「사회분업론」, 아카넷, 2012, 69면.

3) Emile Durkheim(민문홍 역), 앞의 책, 95-96면, 102면.

“결국 우리는 볼프, 폰 바에르, 밀네두아르스의 작업들이 간행된 이래, 분업의 법칙이 사회뿐만 아니라 생물 유기체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⁴⁾

이로써 뒤르켐은 동질성에 기초한 ‘기계적 연대’의 사회와 이질성(기능적 분화)에 기초한 ‘유기적 연대’의 사회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는 ‘기계적 역사의 사회’에서 ‘유기적 연대의 사회’로 넘어가는 것이 역사적 법칙이라고 보았다.⁵⁾

뒤르켐이 보기에, 유기체와 현대 사회는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첫째, 유기체와 현대 사회 모두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이질화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유기체와 현대 사회 모두 분업의 원리에 기초하여 각 부분은 유기적으로 연대한다.

뒤르켐은 유기적 연대가 사회를 통합하는 사회 구조를 ‘사회체계’로 언급했는데,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서로 분화된 부분들의 하위체계에 의해 사회체계는 형성된다.⁶⁾ 이는 (후술하는) 루만의 ‘사회체계’가 기능 체계의 자기생산을 강조하는 것과 대비된다.

2. 루만의 ‘사회체계의 자기생산’

뒤르켐은 부분 간의 ‘유기적 연대’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루만(Niklas Luhmann)은 부분 체계의 작동원리에 관심을 두었다. 루만은 칠레의 생물학자 마투라나(Humberto R. Maturana)의 ‘Autopoiesis’ 개념에 주목했다. 마투라나는 생물을 특징짓는 말로 ‘autopoiesis’란 개념을 창안하였다. 이 개념은 생물은 자기 스스로

4) Emile Durkheim(민문홍 역), 앞의 책, 74면; 필자는 이 구절에서 유기체의 원리를 사회에 적용하려는 뒤르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5)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거의 독자적으로 존재했던 기계적 연대가 점차 자기 영역을 잃게 되고, 유기적 연대가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역사적 법칙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관계를 맺는 형식을 바꾸게 되면, 그 사회의 구조 역시 바뀔 수밖에 없다. 특정 유기체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더 이상 같지 않을 때, 그 유기체의 모습은 반드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앞에서 내가 제시한 명제가 정확하다면, 두 종류의 연대가 각기 상응하는 두 종류의 사회유형이 존재해야만 한다.” Emile Durkheim(민문홍 역), 위의 책, 259면.

6) Emile Durkheim(민문홍 역), 위의 책, 270면.

자신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는 자기생성조직이라는 뜻이다.)⁷⁾ 루만은 ‘Autopoiesis (자기생산)’ 개념을 사회체계에 적용하여 자신의 사회이론을 발전시켰다.

루만은 마투라나의 ‘섭동’(스페인어로 *perturbacion*) 개념도 끌어다 쓰는데, 이는 어떤 체계의 구조에서 일어나는 상태변화가 환경의 어떤 상태에 의해 바로 ‘야기’(*verursachen*)되는 것이 아니라 ‘유발’(*auslösen*)됨을 뜻한다.⁸⁾ 루만의 체계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환경의 변화에도 체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체계의 자기준거성’을 의미한다.

루만은 ‘Autopoiesis(자기생산)’ 개념에 기초해 ‘자기준거적 사회체계이론’을 개발해 이전 세대의 체계이론과 자신의 체계이론 간의 차이를 드러내고자 했다.

“마투라나는 자기생산이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자기생산적 체계는 자신의 구조만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바로 그 요소들 자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산출하는 체계이다.”⁹⁾

루만은 근대사회의 기능체계들이 고유한 방식의 자기조직과 자기생산을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¹⁰⁾ 각 기능체계는 자신의 고유한 의미를 기준으로 작동하는데, 루만은 이를 ‘작동상의 폐쇄성(*operative Geschlossenheit*)’이라고 지칭했다. 체계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마투라나의 ‘섭동’ 개념처럼) 체계의 변화는 환경에 의해 유발될 뿐, 야기되지 않는다. 체계의 구조와 요소를 결정하는 것은 체계 그 자체이지 환경이 아니다. 의미라는 매체의

7) Humberto R. Maturana·Francisco J. Varela(최호영 역), 『삶의 나무』, 갈무리, 2007, 56면; 마투라나는 생물체의 ‘자기생성’에 기초해 세계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대전환을 기도한다. 인식자의 인식은 인식자의 생물학적 본성, 생명체의 조직에 뿌리내리고 있어(43면), 인식자가 없이는 인식이 있을 수 없다. 즉 말한 것은 모두 누가 말한 것이다(35면). 실재(Realität)란 관찰자의 인식행위로부터 나온다(13면). 마투라나는 인식이 ‘저기 바깥에 있는 바로 저’ 세계의 표상(Repräsentation)이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어느 한’ 세계를 끊임없이 산출하는 일(Hervorbringen)이라는 관점을 제시한다(7면). 마투라나는 1960년에 모든 인식활동의 바탕에 깔린 재귀성이 불리를 결과들에 접근하면서 땅이 꺼지는 듯했고 자기 머리가 정상인지 의심했다고 말했다(12면).

8) Humberto R. Maturana·Francisco J. Varela(최호영 역), 위의 책, 29면.

9) Niklas Luhmann(장춘익 역), 『사회의 사회 2』, 새물결, 2012, 89면.

10) Niklas Luhmann(장춘익 역), 위의 책, 62면.

고유성은 체계들의 '작동상의 폐쇄성'에 대한 필수적 상관물이다.¹¹⁾

루만은 '자기생산(autoipoiesis)' 개념에 주목했지만, 뒤르켐과 달리 '유기적 연대' 개념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대신 루만은 '자기생산', 즉 체계의 '작동상의 폐쇄성'에 기초해 체계 간의 '구조적 연결'(strukturelle Kopplung)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구조적 연결' 개념은 개인 간의 상호의존성이 개인의 독립성이라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체계 간의 연결 또한 체계의 '작동상의 폐쇄성(자기생산)'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짐을 뜻한다. 체계는 자기준거를 입각해 체계 스스로의 요소와 구조를 만들고, 이에 기초해 다른 체계와 구조적 연결을 맺는다.

루만은 '체계의 기능적 분화'에 주목하여 사회학의 전통적인 주제인 '통합'의 문제를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다시 풀어냈다. 루만은 근대사회는 과도하게 통합되어 있고 이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히려 근대사회가 기능체계들의 자기생산 측면에서 비할 바 없는 안정성을 가진다고 보았고,¹²⁾ 사회통합의 의미를 축소하여 '부분체계들의 자유의 정도의 축소'로 파악했다. 루만은 '통합'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파악하면서, 통합은 전체에 대한 부분들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체계들 사이의 유동적인 조정에 있다고 보았다. 갈등의 문제는 부분체계들의 너무 강한 통합에 의해 야기되며, 복잡한 사회의 문제는 충분한 분열이 성립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유의 정도의 제한은 연결들이 그에 대한 합의가 필요 없이 가동됨으로써 이루어진다.¹³⁾

다른 한편으로 루만은 사회통합을 '포함/배제의 구별'로 대체했다. 이때 '배제'는 기능체계들에 대한 참여로부터의 배제를 뜻하는데, 배제가 가능할 때만 포함이 성립하게 된다. 루만은 배제 문제를 사회체계가 기능적으로 분화되는 직접적인 결과라고 표현하는데, 배제는 포함보다 훨씬 더 강하게 통합시킨다,¹⁴⁾ 사회학의 과제는 기능적 분화에 맞는 통합의 형식을 찾는 데 있는데, 루만은 이 도식을 '자기생산과 구조적 결합'이라는 구별로 대체했다.¹⁵⁾ 뒤르켐은 사회

11) Niklas Luhmann(장춘익 역), 앞의 책, 64면.

12) Niklas Luhmann(장춘익 역), 위의 책, 716면.

13) Niklas Luhmann(장춘익 역), 위의 책, 700면.

14) Niklas Luhmann(장춘익 역), 위의 책, 718-719면, 731면.

통합을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에서 찾는데 반해, 루만은 ‘자기생산과 구조적 결합’에서 찾았다.

Ⅲ. 사회의 유기체 ‘유추’는 적절한가?

1. 사회와 유기체의 ‘본질적인’ 차이

뒤르켐은 분업(이질적 분화)이 이루어지면 유기적 연대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았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 유기체는 이질적 분화에 기초해 기능 간에 유기적 연대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에 사회에 유기체에 적용되는 원리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뒤르켐은 유기체와 사회가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이질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해, 유기체에 적용되는 부분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사회 부분 간에 유추적용했다. 뒤르켐은 사회 부분 간의 관계를 ‘유기적 연대’라고 이름붙여 이 점을 숨기지 않았다. 과연 사회의 부분 간의 관계에 유기체의 부분 사이의 ‘사실적’ 관계가 그대로 적용될까? 사회의 각 부분은 각자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면 사회 전체의 기능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것인가? 사회는 자기조정 기능을 유기체처럼 내부에 장착하고 있는 것일까?

루만은 유기체(생물체)의 자기준거와 구조적 연결을 사회에도 적용해 거대한 체계이론을 만들었다. 하지만 여기에 무슨 문제는 없는가? 사회와 유기체가 비슷한 것이 아니라면 루만의 체계이론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마투라나의 지적에 주목했다. 마투라나가 보기에, 루만이 자신의 개념을 사회현상들을 설명하는 원리로 사용하는 것은 서술되어야 할 사회현상들을 밝히지 못하고 모호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¹⁶⁾ 루만은 현상들이 유사하다고, 상황들

15) Niklas Luhmann(장춘익 역), 앞의 책, 891면 이하; Walter Reese-Schäfer(이남복 역),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 사상」, 백의, 2002, 28면.

16) Humberto R. Maturana(서창현 역), 「있음에서 함으로」, 갈무리, 2006, 171면.

이 비교가능하다고 봤지만, 마투라나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¹⁷⁾ 마투라나는 역사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볼 때 생명체계의 자기생산이라는 생각보다 선행한다고 보며, 사회를 분석하는 데에서 나타난 모든 연관된 현상들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자기생산 개념에 의해 보다 자세하게 밝혀질 수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⁸⁾

필자는 최근 경험에서 생물체와 사회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최근 그릴 파티를 하다가 그릴 불에 손가락을 데인 적이 있다. 잠을 자기 전까지 계속 차가운 물에 손가락을 넣고 있어야 할 정도로 손가락이 아팠다.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 필자는 생물체가 이런 거라는 생각이 번뜩 떠올랐다. 손가락이 당한 아픔을 머리가 느끼고 온 몸이 아프게 느낀다. 유기적 관계란 것이 이런 관계가 아닌가 싶다. 손가락 마디가 아프데 내 몸이 아픔을 느낀다. 생물체(유기체)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몸이라는 것이다. 각 부분이 한 몸의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분의 기능 장애를 한 몸의 기능 장애로 여긴다. 그에 반해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이런 유기적 관계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사회의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다른 한 부분이 공감하기는 하지만 그 공감은 매우 제한적이다. 공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엄연히 있다. 사람의 공감능력이 있기는 하나, 사회는 유기체 같지 않다. 유기체는 그 부분의 기능이 이질적이지만 서로 유기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사회는 기능적 분화가 발달함에 따라 점점 이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만 서로 간에 유기적 관계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2. '유추' 방법론의 문제점

방법론 차원에서 '사회적 유기체 유추'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베버(Max Weber)가 대표적인데, 베버는 짐멜 사회학의 유추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표출했다.

17) Humberto R. Maturana(서창현 역), 앞의 책, 171면.

18) Humberto R. Maturana(서창현 역), 위의 책, 170-171면.

“유추란 역사적으로 아무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현상을 상호 연관시키는 방식이다. 짐멜은 이러한 방법을 구사함으로써 사회학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사회적 현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고 베버는 비판한다. 베버가 보기에 유추의 방법에 의존하는 사회학은 그저 다양한 지식의 영역으로부터 다양한 실례를 끌어들이는 데 그칠 뿐이다.”¹⁹⁾

유추(類推, analogy)란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방법이다. 유추란 두 개의 사물이 몇몇 성질이나 관계를 공통으로 가질 때, 한 쪽의 사물이 어떤 성질, 또는 관계를 가질 경우, 다른 사물도 그와 같은 성질 또는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추리하는 것이다. 유추라는 방법은 유기체와 사회가 비슷하다는 것에 기초해서 유기체에 적용되는 것을 사회에도 적용한다. 하지만 유기체와 사회가 애초에 비슷하지 않다면 유추 자체가 방법론적으로 문제된다. 무엇보다 유기체와 사회의 본질적 차이는 양자의 유사성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유추라는 방법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Ⅳ. 사회의 유기체 ‘비유’

유기체(생물체)와 사회는 서로 닮은 점도 있지만 닮지 않은 모습도 너무 많다. 그렇기에 유기체에 적용되는 것을 유추해서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다고 생물학과 사회학을 연관지우는 시도가 의미 없을까? ‘사회적 유기체 유추’가 맞지 않다고 해서 유기체의 작동원리를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까? 사회와 유기체는 유추의 관계처럼 아주 닮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구석이 분명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유추라는 방법보다는 사회에 적용할 타당한 규칙을 유기체의 예를 통해(‘사회적 유기체 비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비유(非喩, metaphor)’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새로운 시각

19) 김덕영, 「막스 베버, 이 사람을 보라」, 인물과사상사, 2008, 183면.

을 부여하고자 할 때 '비유'는 사용된다. '비유'와 '유추'는 다른 방법론이다. '유추'는 A와 A'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A에 적용되는 규칙을 A'에 적용하는 것이다. 반면에 '비유'는 서로 다른 점이 분명히 있지만 한 가지 유사점에 근거해 A를 B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사회와 유기체(생물체)는 A와 A'의 관계가 아니라, 중요한 유사점에 근거해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예컨대 글과 건축은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유사점이 있다. 글은 쌓아가는 것이고 짓는 것이라는 점에서 글을 건축에 비유한다. 글도 건축물처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비유가 항상 올바른 결론에 이끄는 것은 아니다. 이는 비유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플라톤(Platon)처럼 3가지 신분 계급을 인간의 머리, 가슴, 하체에 비유하면, 계급 이동이 불가능한 신분사회가 정당화된다. 물론 플라톤은 머리에 해당하는 철학자 계급에 '치자의 공유와 재산의 공유'라는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지만, 이런 것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

1. 잘못된 비유의 예

사회모형을 규명함에 있어 유기체(생물체)를 비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필자는 잘못된 대표적인 예 하나를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유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결론 자체가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잘못된 대표적인 예는 플라톤에게서 찾을 수 있다. 플라톤은 계급에 따른 기능 수행이 조화나 정의를 실현한다고 보았지만, 그 배후에는 계급을 정당화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이성, 의지, 욕망으로 삼분하는 고대 그리스의 사유에 근거해, '국가' 제4편에서 혼을 그 기능이나 성향에 따라 '헤아리는(이성적) 부분', '걱정적인 부분', '욕구하는 부분' 3가지로 나누었다. 영혼의 3부분인 이성(reason), 의지(기개, spirit), 욕망(desire)이 각각의 기능을 제대로 실현할 때 지혜, 용기, 절제가 발현된다.²⁰⁾ 플라톤에 따르면, '제 일을 하는 것'이 실현되

20) Platon(박종현 역), 「국가」, 서광사, 1997, 276면 이하.

는 것이 올바름(올바른 상태)이다. ‘자신의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것’이 ‘훌륭함(훌륭한 상태, 덕; aretē)’이며,²¹⁾ ‘각자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올바름(올바른 상태, 정의; dikaiosynē)’이다. 올바름(올바른 상태)에 도달하려면, 제 일을 충실히 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²²⁾

플라톤에게 정의란 계층 간의 올바른 관계로서, 각 계층이 그의 것을 행하는 것이다.²³⁾ 이성, 의지, 욕망이라는 3가지 영혼의 부분에 상응하여 3종류의 시민층인 수호자, 군인, 생산자는 모두 각자가 오직 그의 것만 행해야 한다는 정의 법칙의 지배하에 놓인다.²⁴⁾ 플라톤은 이를 수호하는 부류, 보조하는 부류, 돈벌이를 하는 부류라고 칭하며, 이들 각각이 나라에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자신의 일을 함’이 ‘올바름’(올바른 상태)이라고 말한다.²⁵⁾ 반면에 ‘올바르지 못함’은 이들 세 부분간의 일종의 내분이며, 참견과 간섭, 그리고 혼 전체에 대한 어떤 일부의 모반이다.²⁶⁾ 보조하는 부류가 수호하려고 하거나, 돈벌이를 하는 부류가 전사의 부류에 속하려고 하면 나라는 파멸하게 된다.²⁷⁾ 플라톤에 따르면, 수호자 계급만이 ‘좋은(선)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의 길로 들어서며, 이를 통해 플라톤은 수호자(철인)의 통치를 정당화한다.²⁸⁾

벨첼(Hans Welzel)은 그의 책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에서 플라톤의 사상을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Protagoras)의 사상에 비추어 비판한다. 벨첼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프로타고라스의 명제는 어떠한 객관적 진리도 인정하지 않은 채, 선과 정의의 척도를 그때 그때의 다수 의견에 따르게 하고, 그래서 그것

21) Platon(박종현 역), 앞의 책, 74면.

22) Platon(박종현 역), 위의 책, 285-286면.

23) Hans Welzel(박은정 역),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삼영사, 2001/2005, 44면.

24) Hans Welzel(박은정 역), 위의 책, 44면.

25) Platon(박종현 역), 위의 책, 289면.

26) Platon(박종현 역), 위의 책, 309면.

27) Platon(박종현 역), 위의 책, 288면.

28) Platon(박종현 역), 위의 책, 255면, 257면, 258면, 260면, 365면, 447면; 플라톤에 따르면, 나라의 수호자들로 선발된 사람들은 특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히 통제된 공동 생활을 감수해야 한다. 수호자들에게는 철저한 공산주의가 적용되어, ‘처자와 재산’을 공유로만 소유할 수 있다. 플라톤은 정치적 권력과 경제력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한다. W.K.C. Guthrie(박종현 역), 「희랍 철학 입문」, 서광사, 2010, 148면.

을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시키는 '집단적 주관주의'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벨첼은 상대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의 시도로 평가했다.²⁹⁾

벨첼에 따르면, 프로타고라스는 시민의 대다수가 정치문제에 관하여 이성적으로 숙고할 능력이 있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근본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낙관적' 인간상을 구상하는데 반해,³⁰⁾ 플라톤은 이데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특별히 은총을 받은, 신중하게 선택된, 수학과 변론술 교육을 받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정확하고 틀리기 쉬운 지각으로부터 생기는 주장을 펼친다.³¹⁾ 따라서 벨첼은 플라톤의 사상에서 지배자는 피지배자들에게 그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저 숙명적인 주장, 즉 '선으로의 강제'는 윤리적으로 선하며 허용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철학적으로 근거지워졌다고 보았다. 벨첼은 플라톤이 오직 절대적인 진리를 지니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태연자약하고 오만한 태도로 개인적인 자유의 가치를 간과했다고 비판한다.³²⁾ 하지만 어떤 인간도 무제한적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면, 횡포와 불의에 빠지게 됨을 막을 수 없다.³³⁾

2. 건강한 유기체와 건강한 사회

필자가 보기에 건강한 유기체와 건강한 사회, 건강하지 않은 유기체와 건강하지 않은 사회는 비슷한 점이 많다. '건강한 사회', '건강하지 않은 사회'와 같은 표현에서 사회가 몸에 "비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몸의 건강이란 무엇인가? 몸의 각 부분이 제 기능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 또한 각 기능 체계들이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때 건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유기체의 각 부분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면 전체가 잘 이루어진다. 사회 또

29) Hans Welsel(박은정 역), 앞의 책, 24면.

30) Hans Welsel(박은정 역), 위의 책, 25면.

31) Hans Welsel(박은정 역), 위의 책, 39면.

32) Hans Welsel(박은정 역), 위의 책, 41면.

33) Hans Welsel(박은정 역), 위의 책, 45면; 고봉진, 「법사상사 소고」, 한국학술정보, 2014, 제1장 참조.

한 마찬가지로. 경제체계, 정치체계, 복지체계 등 각자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사회는 무리 없이 돌아간다. 반면에 유기체의 기능 중 일부가 고장나면 그 유기체는 건강하지 못하다. 이처럼 사회도 경제기능이나 복지기능 등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게 된다. 한 체계가 과도하게 작동하거나, 한 체계가 과소하게 작동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한 기능체계가 다른 기능체계를 침범하면 이 또한 문제된다. 이질적인 부분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질적인 부분은 그 부분만을 보고 기능한다. 그럼에도 각 부분이 어울려 전체가 잘 굴러가는 것은 각 부분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장기가 나빠지면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듯이, 경제체계가 무너지면 복지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필자가 규범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사회관은 “건강한 사회”이다. ‘건강한 사회’의 지표는 GDP가 아니다. 의료와 교육, 최저 생활 등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다. ‘건강한 사회’의 지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에 ‘사회의 질’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의 실제 작동원리는 사회를 관찰함으로써 얻어진다. 사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통일된 목소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치관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 사회를 움직이는 작동원리도 다르다. 신학자들은 여전히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반면, 맑스주의자는 맑시즘의 시각에서 사회를 바라본다. 이론 차원에서는 사회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다. 보는 시각이 달라 그 해답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필자는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는 방법을 통해 유기체의 작동원리로부터 사회의 규범모델을 구하려고 한다. 물론 사회는 결코 유기체가 아니다. 사회를 유기체로 그리는 시도에서 유기체와 사회에 존재하는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필자의 관점에서 사회유기체설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적 관점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이다. 그럼에도 사회를 유기체로 만들려는 것은 필자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다. 사회를 유기체로 만드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규범모델로서 사회유기체설은 유기체가 건강한 이유가 무엇인지, 유기체가 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살피면서 그 원리를 사회에 적용할 뿐이다.

3. 체계와 인간

생명체에는 기관이 있고 세포가 있다. 사회에 생명체를 비유해서 적용해 보면, 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사회의 부분체계이고, 그 기관의 세포에 해당하는 것이 인간이다. 예컨대 정치체계에서 제도권 정치권은 여당과 야당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여당과 야당이 자신의 논리에 따라 정치를 펼치지만, 여당과 야당을 구성하는 인자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다. 여당과 야당 모두 그 당의 구성원인 당원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때론 카리스마 넘치는 1인의 정치가가 나타나 정치체계를 바꾸기도 한다. 시민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도 정치를 펼친다. 시민단체 또한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시민과 시민운동가의 역할이 크다.

학문체계도 마찬가지다.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의 전공에 따라 여러 분류가 나뉘지만, 학문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다. 학문을 증진하고 장려하는 기관도 사람과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경제체계도 마찬가지다.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기관담당자들도 있다.

루만의 체계이론에서 체계는 인간과 상관없이 존재한다. 하지만 체계는 인간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된다. 이는 생물체에서 기관과 세포의 관계와 같다. 루만의 체계이론이 인간을 중시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더 이상 체계의 작동원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루만이 보기에는 체계는 체계 그 자체의 작동원리에 의해 작동될 뿐,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필자가 보기에 루만은 한 면만을 강조해서 봤다. 필자가 루만 이론에 대한 이차적 관찰을 한다면, 루만은 체계가 체계 그 자체의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만을 보았다. 우리는 흔히 '시스템이 움직이는가 사람이 움직이는가'를 살피는 것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그 시스템대로 움직이게 된다.³⁴⁾ 선한 지도자가 있어도 그 선한 지도자가 인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그 지도자가 지도자로 있을 때만 바른 질서가 잡힌다), 선한 지도자도 그 사회의 시스

34)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계기는 미국의 교통체계이다. 미국은 나름 정비된 교통체계를 갖추기 위해 엄청난 벌금을 물려 사람들의 교통규범 위반 의지를 꺾고 준수의를 고양시킨다. 사람들이 제대로 교통을 준수할 것이라는 도덕의식에 의존해서는 미국의 교통시스템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 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고, 사람만을 믿어서는 유지되지 않는다. 높은 벌금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템을 바로 세워 시스템에 따른 질서를 추구한다.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아무리 악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인치(人治)'와 '법치(法治)' 중에서 '법치'를 우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스템이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복잡화되고 다원화되고 기능적으로 분화되는 사회가 되면 점점 더 그런 경향이 강해진다. 작은 사회에서는 선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어도, 복잡한 사회가 될수록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존하게 된다. 루만은 이런 면을 중시하여 자신의 체계이론에서 시스템을 강조하고 인간은 설명인자에서 제외했다.³⁵⁾

하지만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 인간은 여전히 중요하다. 인간이 인간존엄을 가진 존재로서 인권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뿐 아니라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로도 인간은 중요하다. 인간은 시스템만큼은 아니어도 한 위대한 인간이나 인간 집단에 의해 설명되는 체계상의 변화나 변동 등이 꽤 많다. 정치체계에서 우리는 몇몇 정치가가 주도하는 듯한 세상을 살았고, 여당과 야당이라는 인간집단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모두가 인간과 관련된 시스템의 변화이다. 학문체계는 더 더욱 그렇다. 각 학문별로 연구집단이 있고, 한 학문에도 기능적으로 분화된 학자집단이 있다. 위대한 학자나 연구자가 학문 체계에 기여하는 바는 대단하다.

루만의 체계이론은 인간이 사회를 설명하는 설명인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을 도외시켰지만, 인간은 시스템만큼은 아니어도 사회를 설명하는 인자(因字)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한다. 생명체에서 기관의 세포는 엄청나게 많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세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관의 세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을 하면서 경제체계에 참여한다. 경제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바는 없지만 기관의 세포처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학자도 마찬가지다. 대단한 학자라면 학문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평범한 학자라도 학문체계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1인의 학자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

35) 루만이 그렇다고 인간을 중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사회를 설명하는 설명인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인간을 체계이론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도 다수의 학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물론 사회의 중요 체계에 전혀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복지체계가 그 사회의 약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복지체계에도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거나, 그 사회의 멤버십(membership)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다. 예컨대 난민은 어느 사회의 부분체계에도 속하지 못한다.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그 예이다.

체계이론은 인간을 다시 한번 중요한 고려인자로 꼽아야 한다. 인간을 사회의 설명요소로 파악하여 인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사회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이유도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과 별도로 어떤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의 '규범적 시스템 이론'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정의로운) 시스템과 나쁜 시스템을 분별할 수 있다. 예컨대 옛날 한국 사회의 신분제도는 나쁜 시스템이었다. 그 시대에는 신분에 기초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시스템을 누구도 올바른 시스템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서양의 신분제도나 미국의 노예제도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각 부분체계 모두가 인간을 직접적으로 위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체계는 복지체계 정도이다. 경제체계는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의 기반이 되는 자본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학문체계도 학문 그 자체의 발전을 목적으로 할 때도 있고, 인간의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도 있다. 사회가 기능적으로 분화된 기능체계로 분화되면 될수록 기능체계의 작동원리는 그 자체의 논리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간의 인간존엄, 인권을 직접적으로 지향하는 기능체계는 없다. 부분적으로 복지체계가 이를 담당할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설정하고 운영하다면 인간존엄과 인권을 직접적으로 지향하는 기능체계가 만들어질 여지가 있을 것 같다. 기능체계가 분화되면 될수록 인간을 직접적으로 지향하는 복지체계와 정치체계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 분화된 부분체계의 논리를 넘어서 '인간 지향 논리'가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반대로 경제체계의 논리를 다른 체계에 요구해서는 안 되며, 경제체계가 다른 기능체계를 침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규범적 요구와 접해 있다.

4. 면역체계로서 복지체계

생물체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각 조직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가운데,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된다. 생물체의 면역체계에 해당하는 사회의 부분체계는 무엇일까? 루만은 생물체의 면역체계에 비유해서 법을 ‘사회의 면역체계’로 보았다.³⁶⁾ 법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사회 질서를 ‘법과 불법’의 코드로 판단함으로써 면역체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법을 사회의 면역체계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 비유일까? 오늘날 도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 법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법에 의해 사회질서가 잡히고 분쟁이 해결된다는 점에서 법을 면역체계에 비유할 만도 하다. 하지만 면역체계에 해당되는 더 적절한 사회 체계는 ‘복지체계’가 아닐까 생각된다.

인간을 사회의 설명 인자로 도입한다면, 인간에 유익한 체계가 정당한 체계가 된다. 사회를 그냥 설명하는 것에서 떠나 정당한 체계와 정당하지 않은 체계를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세포에 해당하는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체계가 되려면 무엇보다 사회 경쟁에서 떨어진 수많은 개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는 건강해진다. 사회가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지원하지 않으면 사회는 병들기 시작한다. 사회복지제도가 완비되고 사회안전망이 가동되어도 필연적으로 생기는 빈부격차는 본질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여전히 부자들은 부자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모여 산다. 제대로 된 공립학교가 설립된다고 해도 부자들의 사립학교만 못하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 격차로 사회가 차등화되고 분리된다는 점이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야기하는 가장 큰 병균에 해당한다. 이 질병을 고치는 것은 복지체계가 담당한다. 건실한 복지체계가 이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하면 자본주의에 의해 야기되는 병균을 적절히 막을 수 있다. 자본주의에 의해 병균이 야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시장경제는 경쟁과 효율성에

36) Niklas Luhmann(박여성 역), 「사회체계이론 2」, 한길사, 2007, 제9장.

기초해 운행되기에 그곳에는 항상 약자가 생겨난다. 자본은 번성하고 자본의 힘에 노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되어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된다.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비용으로 처리되어 가장 쉽게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고나 비정규직이 도입된다. 인간이 가지는 존엄과 가치는 무시되고 도구화된 인간이 양산된다. 경제체계의 잘못된 모습인 '자본주의'의 모습이다. 잘못된 시장경제, 잘못된 경제체계의 현실이 이런 것이라면, 자본주의(자본주의는 시장경제의 총체화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엄연히 다른 말이다. 시장경제가 잘못 나가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는 교정되어야 한다. 교정되는 동시에, 자본주의가 산출하는 병균(빈부 격차, 사회 불안정)은 복지체계에 의해 치유되어야 한다. 건강한 사회의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실한 복지체계의 수립과 운행이다.

V. 결론

사회의 규범적 모델을 설정함에 있어 유기체의 작동원리를 살피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유기체는 기능적으로 분화된 조직들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전체 차원에서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진다. 유기체는 유기적 협력, 유기적 연대의 매커니즘을 그 자신 안에 내재하고 있다. 반면에 현대 사회는 각각의 부분체계가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유기적 연대의 매커니즘을 갖추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유기체와 같은 연대의 매커니즘은 사회 자체에는 없다.

유기체는 기능적으로 분화된 조직들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집중할 뿐, 다른 기능조직의 의미 기준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에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체계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다른 기능체계가 자신의 의미 기준을 따라 작동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가 되었다. 이런 면에서 기능적으로 분화되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맞는 표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필자는 사회와 유기체가 사회에 유기체의 작동 원리를 유추 적용할 만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점이 더 많다. 사

회와 유기체는 ‘유추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비유 관계’에 있다. 유기체의 작동 원리를 잘 살펴보고, 이를 현대 사회의 규범적 모델로 설정하는 작업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사회적 유기체 비유’를 통해 사회의 규범적 모델을 설정하는 작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사회를 유기체처럼 만들 수는 없지만, 유기체가 작동하는 원리에 비추어 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려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유기체의 작동원리를 참조하지만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유기체는 유기적 연대의 매커니즘이 내재해 있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다. 규범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과제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기체에 비유해 사회의 규범적 모델을 설정하는 작업은 ‘비유’라는 특징에 기초해 유기체의 작동원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인다.

참고문헌

- 고봉진, 「법사상사 소고」, 한국학술정보, 2014.
- 김덕영, 「막스 베버, 이 사람을 보라」, 인물과사상사, 2008.
- Aristoteles(천병희 역), 「정치학」, 숲, 2009.
- Emile Durkheim(민문홍 역), 「사회분업론」, 아카넷, 2012.
- W.K.C. Guthrie(박종현 역), 「희랍 철학 입문」, 서광사, 2010.
- Niklas Luhmann(박여성 역), 「사회체계이론 2」, 한길사, 2007.
- Niklas Luhmann(장춘익 역), 「사회의 사회 2」, 새물결, 2012.
- Henry Summer Maine(정동호·김은아·강승묵 역), 「고대법」, 세창출판사, 2009.
- Humberto R. Maturana(서창현 역), 「있음에서 함으로」, 갈무리, 2006.
- Humberto R. Maturana·Francisco J. Varela(최호영 역), 「삶의 나무」, 갈무리, 2007.
- Platon(박종현 역), 「국가」, 서광사, 1997.
- Walter Reese-Schäfer(이남복 역),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 사상」, 백의, 2002.
- Hans Welsel(박은정 역),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삼영사, 2005.

[Abstract]

The social organism 'analogy' and 'metaphor'

Ko, Bong-Jin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In this paper, I will briefly review the theory of Durkheim and Luhmann as a scholar who applied the principles applied to organisms to society, and then examine whether it is desirable to 'analogize' organisms to society. I think that society and organism are in a relationship of 'metaphor' rather than 'analogy' relationship. I want to compare society to organisms based on the similarity between diseased and diseased societies, healthy and healthy societies.

I don't think that society and organisms are so similar to society that it is analogous to the working principle of organisms. There are similarities but more differences. Society and organisms are in 'metaphor relationship' rather than 'analogy relationship'. The study of the working principles of organisms and setting them as normative models of modern society seems to be of great value.

It is quite possible to set up a normative model of society through the 'organic analogy of society'. Although society can not be made like an organism, it is to demonstrate 'sociological imagination' to organize and operate society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of organism's operation. It refers to the working principle of an organism, but it is difficult to apply it to society. Organisms have a mechanism of organic solidarity, but society is not. Given that the task of realizing the norm is too difficult, it is not desirable to set a task that is far from reality. The work of establishing a

normative model of society analogous to organisms partly accepts the working principles of organisms based on the feature of 'metaphor'.

System theory should once again mark human beings as important considerations. We have to go in the direction of emphasizing the human being as a factor of explanation of society. The reason why we want to have a social system is also for human beings, not something that exists apart from human beings. My 'normative system theory' can distinguish good systems from bad systems in that sense.

Key words : society, organism, system, analogy, metaphor